

한국적 이미지의 휴식복 개발 연구 (제1보)

채금석 · 나유신[†]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Development of Korean Style Loungewear (Part I)

Keum-Seok Chae · Yoo-Shin Na[†]

Dept. of Clothing &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접수일(2011년 4월 4일), 수정일(1차 : 2011년 5월 22일, 완료일 : 2011년 6월 14일), 게재확정일(2011년 7월 4일)

Abstract

This study develops Korean Style Loungewear as a cultural fashion product. Through the use of surveys, Korean sentiments about Korean traditional clothing and Korean style fashion have been examined. The survey was conducted for 5,000 people in Korea; 3,500 responses of meaningful data were statistically analyzed. The data was processed by a SAS system; frequency and percentage were performed. It was found that Korean people have a high preference for Korean traditional clothing; however, they are not satisfied with its comfort, maintenance, or price. They answered that they would wear Korean style fashion if the design, comfort, and price were improved. They responded positively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Style Loungewear and its effectiveness as a cultural product. Based on the survey and basic geometric structures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s, silhouette designs of Loungewear have been developed. The designs are divided into one-piece styles and two-piece styles. The characteristic design details are *git* (Korean neckline) and *goreum* (Korean tie ribbon). The results have been shown on the “Han Style Fashion Show” by Jeonju City and exhibited in the “Seoul Living Design Fair” and the “International Art & Craft Trend Fair” in COEX, Seoul.

Key words: Loungewear, Korean style, Korean traditional clothing, Korean style fashion, Cultural fashion product; 휴식복, 한국적 이미지, 전통한복, 한국적 패션, 패션문화상품

I. 서 론

한국은 1970년대에 관광산업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된 이래 88 서울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이후 외국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함으로써, 관광산업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주요 성장산업으로 디자인 산업과 함께 집중 육성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전통복식에 근거한 한국적 이미지의 휴식복을 개발하여 전 세계에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부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휴식복이란 가정에서 휴식이나 레저 활동 시에 착용 가능한 실내외복을 의미한다. 한국의 전통복식은 국내외인 모두에게 생활 속에서 입을 수 있는 생활의상으로서의 개념보다는 불편함이나 의례적인 옷으로 인식되어 생활 속에서 멀어져가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한국적 이미지의 휴식복을 개발하여 국내 호텔 및 숙박업소의 투숙객들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함으로써, 이를 통해 내국인들에게 민족적 자부심과 정체성을 고양시킬 수 있는 생활문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며,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을 상징하는 한국적 휴식복을 착용하는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이미지를 고양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를 통하여

[†]Corresponding author
E-mail: ysn86@hotmail.com

본 논문은 2010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한국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전통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한국적 패션의 현대화·대중화의 시도로서, 대중의식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패션문화상품으로서 한국적 이미지의 휴식복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둘째, 조사결과를 토대로 디자인 모형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1보>에서는 설문조사에 따른 의식조사결과를 분석하여 한국적 휴식복의 디자인 선호도 조사를 통해 그 실루엣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색상, 문양 등 총체적인 디자인 결과는 <제2보>에서 다룬다.

1. 연구문제

- 1) 전통한복의 구조적 특징을 살핀다.
- 2) 전통한복·한국적 패션에 대한 대중의식을 조사하여 개선 방향을 연구한다.
- 3) 한국적 이미지의 휴식복 개발에 대한 의식과 디자인 선호도를 조사한다.
- 4) 조사결과에 근거, 한국적 이미지의 휴식복 디자인 모형을 제시한다.

2.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서울·경기도·경상도·전라도·충청도 지역에 거주하는 20대 이상 성인 남녀와 국내 특급호텔의 종사자들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3,500부의 설문지를 통계처리하였다. 설문조사는 2007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하였다.

2) 설문지 구성

본 연구의 설문지는 일반인과 호텔 종사자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전통한복에 대한 일반적인 의식 2문항, 한국적 패션에 대한 착용실태 및 의식 11문항, 호텔 이용객들의 한국적 휴식복에 관한 의식 및 디자인 선호도 8문항, 한식 음식점소의 한국적 유니폼에 관한 의식 및 디자인 선호도 7문항, 인구통계적 특성에 관한 질문 8문항 등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통계처리

분석에 쓰인 프로그램은 SAS SYSTEM에 의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통계방법으로 빈도, 백분율을 전체 문항에 적용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용어 정의

“휴식복”이란 가정에서 휴식이나 레저 활동 시에 착용 가능한 실내외복을 의미하며, 또한 호텔 등 숙박업소에 비치되어 객실 내외 주변에서 착용 가능한 실내복을 의미하기도 한다. 자국의 정체성을 나타낸 휴식복으로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킨 일본의 ‘유카타(浴衣)’의 예를 보면, 착용이 어렵고 고가인 전통복식 ‘기모노’를 세계인들이 착용 가능한 현대적 디자인으로 개발한 것을 알 수 있다(Chae, 2007).

휴식복의 영문 표기는 실내에서 편하게 입는 평상복을 뜻하는 ‘loungewear’를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2. 한국 전통복식의 구조적 특징

한국의 전통복은 저고리와 바지·치마를 기본으로 하여, 의외로 차림을 완성하는 포가 대표적이며, 그 조형적 특성이나 구성방법 및 내재된 정신성에서 한민족 고유의 특성을 이루어 왔다.

1) 저고리

한국 전통복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저고리는 사각형을 기본으로 삼각형 등 기하학적 형태에 근거한 길, 깃, 쇄, 소매로 구성되어 있다. 형태미에 있어 곧은 안깃과 길깃이 사선으로 V자형의 목둘레선을 이루며 앞쪽으로 내려와 곡선으로 모아짐으로써 단정하면서도 아름다움이 있다. 여기에 한국의 독특한 결속 양식인 고름은 몸체의 움직임이나 외부의 영향에 따라 생동감 있는 율동미를 보여준다.

구조적으로는 대칭이지만 저고리의 쇄, 고름 등과 같은 옷의 각 부분과 착용법에 있어서는 비대칭적 특성이 많이 보이며, 이러한 특징은 최근 현대 패션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와 통하는 부분이다.

2) 바지

바지는 고의(袴衣), 각고(脚袴)라 하며 고대에는 남녀가 함께 착용하였다. 이후 남자복식에는 바지, 고의, 잠방이 등 의외로 남아 있으나, 여자복식에서의 바지

는 고쟁이, 속곳이라 하여 치마 속에 있는 속옷으로 착용되고 있다. 북방 기마민족의 바지 착용을 계승한 한국의 바지는 서양의 바지와 구성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고유한 양식을 이루었다.

한국의 전통바지는 허리는 원상(圓象; ○), 마루폭은 방형(方形; □), 사쪽은 크기가 다른 삼각형(三角形; △) 두개로 이루어진 기하학적 면분할에 의한 특징적 구조를 보이나 그 구성미는 부드러운 공간적 유연미를 보인다. 이 각각의 모양들은 전후의 안팎이 대칭으로 180° 방향을 바꾸어 연결되어 있어 피비우스의 띠 원리가 적용되어 실제로 안과 밖의 구분이 없고 연속되어 있어 한 자리로 되돌아오게 되므로 시작과 끝이 동일한 곡면이 형성됨으로써 공간 형성에 고정관념을 벗어난 독창적인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그 결속양식은 체형에 따라 조절 가능한 가변적 특징을 갖고, 신체를 구속하지 않는 풍성한 형태는 인체의 활동에 따른 제약이 적어 안락한 착용을 배려할 뿐만 아니라 대담과 행전으로 아래 부분을 간단히 고정시켜, 위는 편안하고 아래는 날렵한 착장상태로 인해 매우 기능적인 편의성 의복이라 할 수 있다.

3) 치마

한국 전통치마 역시 긴 직사각형 3쪽이 이어져 기하학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것이 만들어내는 조형미는 절제된 바지와 같이 풍성하며 부드러운 공간적 여유의 착장미를 보인다.

4) 포(袍)

포 역시 고대로부터의 한국의 기본 복식 중 하나로 겉에 입어 의복 착용을 마무리하는 옷으로, 방한복, 외출복, 의례복 등의 용도로 발전하였다(Chae & Koh, 2009). 유교적 사회질서 체계를 이룬 조선시대에 이르러 의관정제(衣冠整齊)를 매우 중시하였던 당시의 복식관에 근거, 착용방식이나 그 착용기준이 엄격히 구분되었으므로 포는 우리민족의 사상이나 가치관, 미의식 등의 정신문화를 가장 가시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한국의 포의 구조적 특성은 상의연장형, 기하학적, 조(鳥)형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

(1) 상의연장형

포의 구조는 저고리 구조와 동일하나, 다만 그 길이만 연장되어 방한·의례적 용도로 확대된다. 삼국시대 포는 가선을 두르고 허리에 대를 매는 전개형 저고리의 길이의 연장이며, 다양한 형태로 발전한

조선시대 포는 철릭과 같은 상의하상식 구성도 있으나 대부분 그 전체적 구조는 직사각형의 길, 완만한 곡선과 직선의 크고 작은 직사각형이 조합된 소매, 삼각형의 무, 쏘, 긴 직선형의 깃 등 저고리 구조와 같다.

(2) 기하학적

절제한 바와 같이 한국 전통복의 구조는 사각형을 기본으로 구성되어 조작적이거나 좌위적인 기교 없이 다양한 기하학적 형태로 조합되어 있다. 그 구성적 특징은 곧은 사각형의 길, 완만한 곡선과 직선의 소매가 병렬배치 되어 있다. 또한 삼각형, 사각형으로 형성된 깃, 쏘, 무가 세부적으로 역시 기하학적 도형들로 그 크기와 모양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다.

또한 한국의 전통적 우주관은 천지인(天地人) 삼재 개념으로 이해되는데, 천은 원(圓; ○), 지는 방(方; □), 인은 각(角; △)으로 표현하고 있다(Kim, 1999). 이러한 기하학적 표상의 우주관은 절제한 저고리·치마·바지·포의 기하학적 구조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조(鳥)형

한국 포의 완만한 곡선과 직선형이 조합된 소매 형태는 새의 형상을 연상시킨다. 이러한 조형구조 소매의 디자인 특징은 한국 고대의 신선사상과 연관됨을 추론할 수 있다. 현세의 삶보다 사후세계에 의미를 둔 장생불사의 신선의 모습을 이상적 인물로 여김으로써 지상의 인간과 천상의 신선의 메신저로 새를 형상화한 의미로 이해된다고 사료된다(Chae & Koh, 2009).

이상 저고리·치마·바지·포의 한국 전통복은 크고 작은 사각형을 기본으로 부분적으로 삼각형, 사다리꼴 등 기하학적 구조를 바탕으로 한 특징을 갖고 있으며 그 조형적 특징은 유연한 공간미로 인체를 구속하지 않는 융통성과 가변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융통성·가변성은 정량적 구성비율에 따라 인체형 그대로 조형해내는 서양복과는 상반된 특성이다.

III. 전통한복·한국적 패션 및 휴식복에 대한 의식조사

절제한 바와 같이 본 장의 조사대상은 서울 등 국내 거주 20대 이상 남녀로, 배포한 설문지 5,000부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3,500부를 통계처리 하였다. 설문구성은 전통한복·한국적 패션 및 휴식복에 대한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문항 개발하였다.

1. 전통한복에 대한 인식

본 연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89%가 현재 시판되고 있는 전통한복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Table 1). 문화체육부(“Selection for Face”, 1996)는 여론조사를 통해 한국 문화상징물로 한복, 한글, 한식, 한옥, 태권도 등 5가지를 선정하였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것이 한복이었다. Chae(2001)의 연구에서 전통한복에 관한 흥미도가 80.9%으로 나타났으며, Kwak and Nam(2002)의 연구에서 전통한복에 대한 태도는 남녀 모두가 긍정적이었고, 여자가 좀 더 유의적으로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대 생활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전통한복 착용에 대한 불만족 요인에 관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본 연구의 결과, 전통한복을 꺼리는 이유로는 55.7%가 활동하기 불편해서였고, 51.3%는 세탁과 관리의 어려움이었다. 그

다음으로 입는 격식이 까다롭고 양복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다는 순으로 나타났는데, Kim(2000)와 Yoo(2001)의 연구에서도 전통한복의 착용에 대한 불만족 사항으로 활동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통한복 착용과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한복 착용 불편 요인을 분석한 Cho and Jeon(2001)의 연구에서 전통한복은 동정을 갈아대는 점, 옷고름을 매는 방법이 어렵고 잘 풀리는 점, 소매통과 치마폭이 넓어 활동에 불편한 점, 개성이 발휘되지 못하는 점이 불편하다고 하였고, Park(2001)의 연구에서는 전통한복의 불만족 이유로 디자인, 색상, 소재, 사이즈가 다양하지 않고 고급스러움이 없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통한복의 활발한 착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전통한복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교육과 사회적 여건이 형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며, 실루엣의 변형을 통해 활동이 편해지고 세탁과 관리가 용이한 소재 사용으로, 전통한복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높은 만족도가 전통한복의 구매로 바로 연결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된다.

Table 1. Satisfaction ratings for amaiable Korean traditional costumes

Ratings	Frequency (no. of people)	Percentage (%)
Very satisfied	216	6.2
Satisfied	1262	36.1
Average	1631	46.7
Unsatisfied	332	9.5
Very unsatisfied	54	1.5
Total	3495	100.0

2. 한국적 패션에 대한 인식

한국적 패션에 관한 인식분석결과<Table 3>로 ‘호감은 가나 입기에 망설여진다(57.8%)’, ‘호감이 가고 입고 싶어진다(19.9%)’고 대답하여, 한국적 패션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Kim(2000)의 연구와 일치한다.

Table 2. Dissatisfaction factors for wearing Korean traditional costumes

Classification		Frequency (no. of people)	Percentage (%)
Inconvenience	Difficult to wear	908	26.5
	Uneasy to wash & care	1758	51.3
	Uncomfortable for active lifestyle	1910	55.7
	Expensive	901	26.3
Non-aesthetic	Unsatisfied with design	516	15.0
	Few choices for fabrics	277	8.1
Unpopularity	Inconvenient to made to order	635	18.5
	Hard to find high quality ready-made products	396	11.5
	Out of trends	415	12.1
	Hard to find reliable stores	193	5.6
Total		3430	

Table 3. Opinions on Korean style fashion in the market

Classification	Frequency (no. of people)	Percentage (%)
Interested & want to wear	693	19.9
Interested but hesitate to wear	2008	57.8
Don't want to wear	484	13.9
Don't want to wear but feel necessity of wearing	292	8.4
Total	3477	100.0

Table 4. Reasons to hesitate buying & wearing Korean style fashion (multiple answers)

Reasons to hesitate	Frequency (no. of people)	Percentage (%)
Don't like designs	923	26.8
Expensive	1408	40.9
Uncomfortable for active lifestyle	1435	41.6
Remind of specific occupations	904	26.3
Not high quality	329	9.6
Out of trends	576	16.7
Total	3439	

Chae(2001)의 연구에서 전통한복에 관한 흥미도가 80.9%였으나, 전통한복의 구입의사를 묻는 문항에서 47.7%만이 긍정적 의견을 표명해 전통한복에 대한 단순한 흥미와 적극적인 전통한복의 구입과는 차이를 보인 결과와 유의하다.

또한 한국적 패션의 착용 및 구입이 망설여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비싼 가격과 활동이 불편한 이유가 82.5%로 나타났다(Table 4).

본 연구에서 한국적 패션의 착용용도<Table 5>로는 명절, 기념행사에 착용(53.2%)하거나 예복(약혼, 결혼식)으로 착용(40.2%)으로 나타나, 이는 Kim(2000), Yoo(2001), Koh(1998)의 연구와 일치한다.

호감은 가나 망설여지는 이유로는 한국적 패션을 가격이 비싸고 활동하기에 불편하다고 인식해 특별한 날에만 입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재와 실루엣의 변화 등을 통해 가격과 편리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Kim(1995)의 연구에서는 한복을 기피하는 첫번째 이유로 전체 응답자의 53.7%가 '활동에 불편하다'고 나타났다. 다음으로 '갖추어 입기 번거롭다(15.3%)', '어색하고 쑥스럽다(10.3%)'의 순이었다.

Table 5. Purpose of wearing Korean style fashion (multiple answers)

Purpose of wearing	Frequency (no. of people)	Percentage (%)
Everyday clothes	93	3.2
Ceremonial dress (wedding and engagement)	1186	40.2
Holiday, festive events	1569	53.2
Formal dress	480	16.3
Work clothes	46	1.6
Other	302	10.2
Total	2952	

Table 6. Intention of buying Korean style fashion

Intention of buying	Frequency (no. of people)	Percentage (%)
Want to buy	1297	39.2
Don't want to buy	857	25.9
Don't know	1151	34.8
Total	3305	100.0

한국적 패션의 구입의사<Table 6>로는 39.2%가 긍정적이었으며,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34.8%를 한국적 패션구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편리성의 보강과 합리적인 가격대 제시가 필요하며 전통적인 이미지를 살리면서 현대인의 개성과 취미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능성과 심미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휴식복에 대한 인식

휴식복은 신체적 편의를 도모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휴식을 취하여 심리적으로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의복이라 할 수 있다. 현대 생활에서도 일상적인 업무 이외의 여가 및 휴식시간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어서 이에 부응하는 휴식복의 개발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더욱이 호텔과 같이 외국인을 접객하는 곳에서 한국적 정체성을 살린 휴식복을 개발하여 제공한다면 매우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휴식복에 대한 한국적 이미지 부각효과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82.5%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한국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한국

Table 7. Effectiveness of Korean style loungewear to promote the Korean image

Effectiveness	Frequency (no. of people)	Percentage (%)
Very effective	1182	33.8
Effective	1703	48.7
Average	484	13.8
Not effective	104	3.0
Not effective at all	22	.6
Total	3495	100.0

적 휴식복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이는 Chae(2001)의 연구에서 여객선·여객기·호텔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한 휴식복에 대한 의식조사에서 84.7%가 휴식복 개발이 관광산업에 홍보효과가 있다고 응답해 휴식복 개발에 매우 긍정적이었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한국적 이미지의 휴식복 개발에 대한 흥미에 관한 문항에 96.1%가 상당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의하다(Table 8). 따라서 2001년도의 설문조사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보아, 휴식복 개발의 적극적인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된다.

Table 8. Necessity needs for providing Korean style loungewear

Necessity needs	Frequency (no. of people)	Percentage (%)
Very positive	775	22.2
Positive	1594	45.6
Average	891	25.5
Negative	200	5.7
Very negative	35	1.0
Total	3495	100.0

한편, 직업별로 한국적 휴식복이 한국적 이미지를 나타내는데 효과적인가에 대한 반응에 있어, 직업별로 대부분 긍정적 반응이었다. 특히 호텔 종사자들의 75.9%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Table 9>, 50%가 휴식복 제공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0). Chae(2001)의 연구에서 호텔 종사자 68.6%가 휴식복 제공이 홍보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에 비해, 2007년 본 연구조사에서는 휴식복 제공의 필요성에 대해 81.5%가 매우 긍정적으로 답변함으로써, 휴식복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Table 9. Effectiveness of Korean style loungewear to promote the Korean image (Occupational survey)

Effectiveness	Student		Housewife		Specialized job		Service job		Hotel worker		Etc.	
	N	%	N	%	N	%	N	%	N	%	N	%
Very positive	627	38.2	156	27.2	186	31.2	103	33.3	30	28.8	73	28.6
Positive	777	47.4	317	55.3	294	49.2	136	44.0	49	47.1	126	49.4
Average	190	11.6	81	14.1	90	15.1	49	15.9	21	20.2	49	19.2
Negative	36	2.2	17	3.0	22	3.7	17	5.5	4	3.8	6	2.4
Very negative	10	.6	2	.3	5	.8	4	1.3	0	0	1	.4
Total	1640	100.0	573	100.0	597	100.0	309	100.0	104	100.0	255	100.0

Table 10. Necessity of providing Korean style loungewear (Occupational survey)

Necessity	Student		Housewife		Specialized job		Service job		Hotel worker		Etc.	
	N	%	N	%	N	%	N	%	N	%	N	%
Very positive	379	23.1	110	19.2	129	21.6	76	24.6	22	21.2	56	22.0
Positive	756	46.1	307	53.6	268	44.9	126	40.8	30	28.8	103	40.4
Average	404	24.6	119	20.8	164	27.5	80	25.9	41	39.4	75	29.4
Negative	87	5.3	31	5.4	29	4.9	22	7.1	10	9.6	19	7.5
Very negative	14	.9	6	1.0	7	1.2	5	1.6	1	1.0	2	.8
Total	1640	100.0	573	100.0	597	100.0	309	100.0	104	100.0	255	100.0

Table 11. Fabric suitable for Korean style loungewear

Fabric	Frequency (no. of people)	Percentage (%)
Korean paper fabric	605	17.5
Cotton flannel or towel fabric	364	10.5
Cotton fabric	1777	51.3
Lustrous fabric	476	13.7
Jersey knit fabric	245	7.1
Total	3467	100.0

휴식복에 적합한 소재로는 내추럴하고 부드러운 면소재가 51.3%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Chae (2001)의 연구에서도 이용객과 종사자 모두 질감이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면의 느낌을 가장 선호했던 것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Table 11).

현재 웰빙이 사회구조뿐만 아니라 생활양식마저 변화시켜 전 세계적으로 소비문화가 바뀌고 새로운 산업과 상품, 거대한 시장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의류에서의 웰빙 현상은 주로 건강 기능성 소재 개발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적 휴식복으로 적합한 소재로 질감이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면의 느낌을 줄 수 있는 건강 기능적인 소재를 개발하고 활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Yoo and Kweon(2006)의 연구에서 소재의 선호도는 순면(53.8%), 합성섬유(23.1%)의 순으로 나타나 순면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k(2001)의 일반생활한복소재를 조사한 결과에서 예복용으로 사용되었던 견소재에서 탈피하여 세탁이 편리한 면 소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한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에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웰빙 바람의 영향으로 천연소재에 대한 선호

Table 12. Intention of wearing garments made of Korean paper fabric

Intention	Frequency (no. of people)	Percentage (%)
Very interested & intend to wear	576	16.6
Interested but hesitate to wear	1781	51.4
Heard about it but not interested	498	14.4
Never heard about it	609	17.6
Total	3464	100.0

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되며, 생활한복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있어서는, 합성섬유보다는 천연섬유가 더 적합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충효과, 원적외선 방출효과로 인해 건강 섬유로 부각되고 있는 한지섬유로 제작된 옷의 착용 의사에 대해서는 68%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지섬유를 이용한 의상제작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제시한다(Table 12).

이상 한국적 이미지의 휴식복 개발에 대한 의식조사결과에 근거하여 한국적 이미지의 휴식복 개발의 방향과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하며, 전통 한복·한국적 패션·휴식복에 대한 의식조사결과를 <Table 13>에 정리하였다.

IV. 디자인 선호도 조사 및 휴식복 디자인 개발 과정

본 장의 설문구성은 한국적 휴식복에 대한 디자인 선호도 중심으로 문항 개발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른 디자인 개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Table 13. Results of survey about Korean style loungewear

Classification	Characteristics	Response
Korean traditional costume	Favorable image	Positive response
	Inconvenience	Dissatisfied with activity, care, price
	Non-aesthetic	Demand improvement on design & fabric
	Unpopularity	Insufficient development of ready-made products
Korean style fashion	Favorable image	Positive response
	Inconvenience	Dissatisfied with activity, price
	Non-aesthetic	Insufficient development of high quality designs
	Unpopularity	Out of trend / unsuitable for everyday life
Korean style loungewear	Favorable image	Expect effect of promoting Korean image
	Necessity	Positive response

1. 실루엣

전체 응답자 중 40.4%가 원피스형, 23%가 투피스형을 선호하였고, 35.5%가 어느 것이어도 상관없는 것으로 조사<Table 14>되었으므로, 이를 토대로 원피스형, 투피스형의 두 유형으로 휴식복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1) 원피스형

(1) 형태: 한국적 패션에서 가장 한국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으로 옷고름(47.8%, 복수응답)과 깃(44.4%, 복수응답)이 가장 많은 의견이었으므로, 저고리의 깃과 옷고름을 특징으로 하는 디자인 개발을 기본으로 하였다.

여밈방법에 따라 전통적인 포 형태의 전개형과 편

리성을 강조한 밀폐형의 디자인을 함께 제시하였다.

① 전개형: 전개형의 경우, 여밈의 방법을 달리하여 다양성을 추구하였다. 전통적인 대를 이용한 대형<Fig. 1>, 전통적인 고름을 이용한 고름형<Fig. 2>, 전통적인 고름과 대를 통합한 띠고름형<Fig. 3>, 현대적인 단추형<Fig. 4>으로 구분하였다. 띠고름형은 고름의 길이를 길게 하여 대와 같이 허리에 두른 후 고름을 맬 수 있도록 디자인 했다.

② 밀폐형: 밀폐형<Fig. 5>의 경우, 저고리 깃 형태의 네크라인을 기본으로, 상의연장형, 치마저고리를 연상시키는 가로선을 넣은 상하연결형, 하상에 약간의 주름을 넣어 변화를 준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이상 2가지 유형의 전체 실루엣은 전통포의 형태를 기본으로 상의가 연장된 느낌의 상의연장형<Fig. 6>과 치마·저고리를 연결하여 가슴 아래 절개선이 있는 상하연결형<Fig. 7>으로 개발하였다. 이 과정은 20명의 연구자들의 착장검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적용하여 상하연결형은 고름형과 밀폐형에만 적용하였다.

또한, 깃은 가슴선형 깃<Fig. 8>과 V 네크라인 형태의 짧은 깃인 목선형 깃<Fig. 9>을 함께 제시하였다.

소매 형태는 진동 길이에 차이를 두어 짧은 진동에 직선에 가까운 완만한 곡선으로 처리한 직선형 소매<Fig. 10>와 긴 진동에 저고리 배래를 강조하여 둥근

Table 14. Preferred silhouette of Korean style loungewear

Silhouette	Frequency (no. of people)	Percentage (%)
One-piece style	1404	40.4
Both	1232	35.5
Two-piece style	799	23.0
Others	39	1.1
Total	347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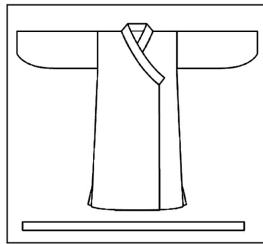


Fig. 1. Bel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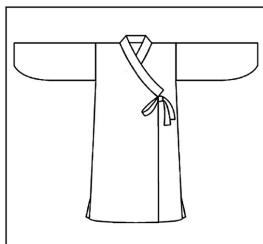


Fig. 2. Short Gor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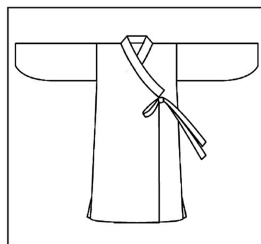


Fig. 3. Long Gor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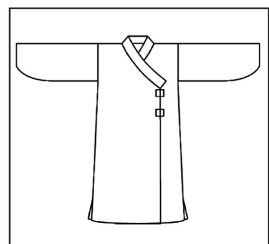


Fig. 4. But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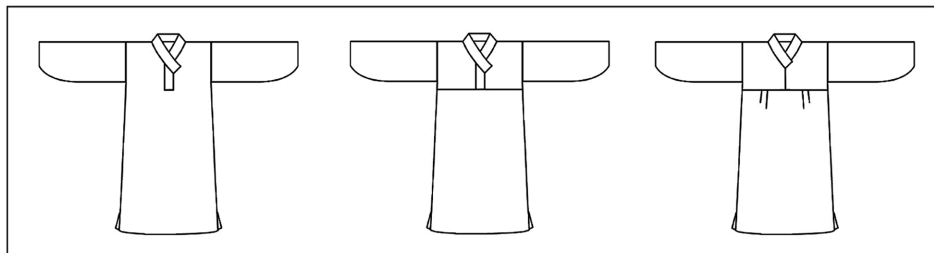


Fig. 5. Closed One-piece sty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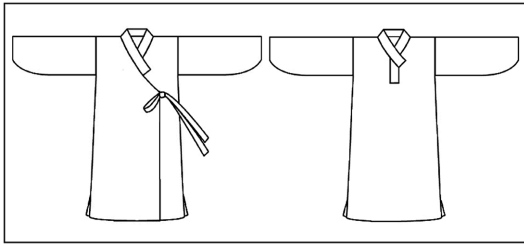


Fig. 6. Regular sty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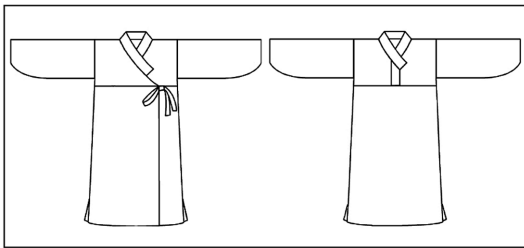


Fig. 7. Yoke style.

Table 15. Preferred length of one-piece style for Korean style loungewear

Length	Frequency (no. of people)	Percentage (%)
Knee length	1193	34.7
Calf length	1798	52.3
Ankle length	446	13.0
Total	343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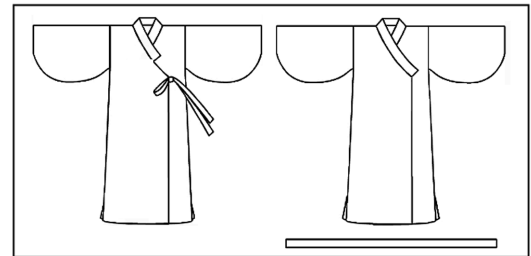


Fig. 13. Ankle length.

곡선으로 처리한 곡선형 소매<Fig. 11>를 함께 제시하였다.

(2) 길이: 원피스형의 길이는 52.3%가 종아리 길이를 선호하였고 34.7%가 무릎 길이, 13%가 발목 길이를 선호하여<Table 15>, 신체를 감싸면서도 편리성이 있는 종아리 길이<Fig. 12>로 디자인하였으며, 설문결과에서는 선호도가 적었으나 전통적 포와 유사

한 발목 길이<Fig. 13>의 디자인도 일부 포함하였다. 종아리 길이는 직선형 소매를 적용하고, 발목 길이는 진동을 넓게 하고 배래선을 등글게 하여 전통저고리의 느낌을 강조한 곡선형 소매를 적용하였다.

2) 투피스형

(1) 상의: 원피스형과 마찬가지로 저고리의 깃과 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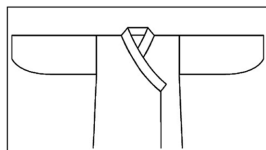


Fig. 8. Chest-length coll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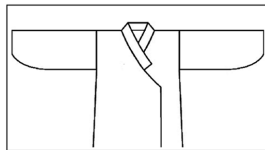


Fig. 9. Neck-length coll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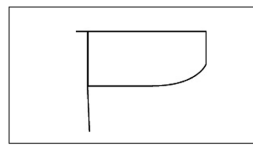


Fig. 10. Straight slee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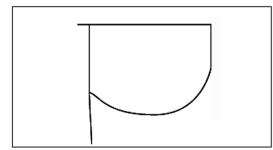


Fig. 11. Round slee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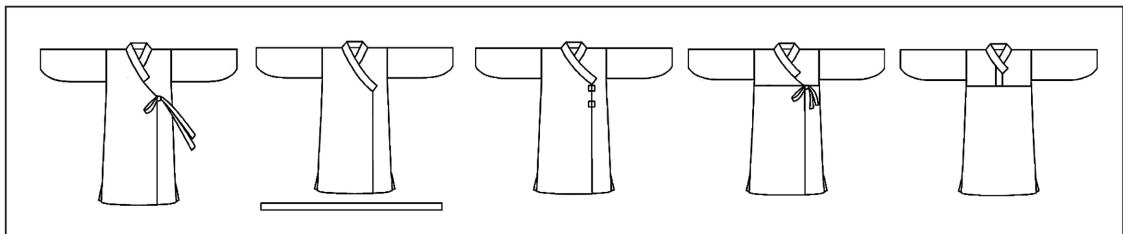


Fig. 12. Calf leng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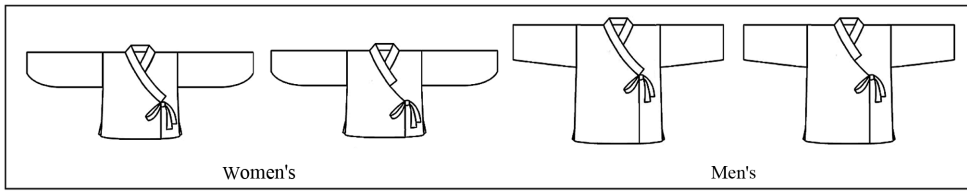


Fig. 14. Open sty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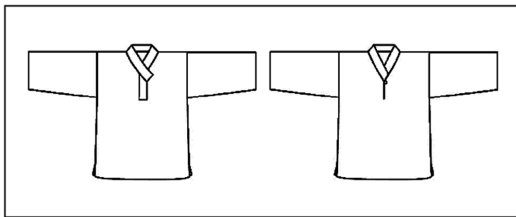


Fig. 15. Closed style.

고름을 대표적인 특징으로 하여 개발하였다.

전통적 저고리와 같은 고름형 여밈인 전개형<Fig. 14>과 함께, 편리한 티셔츠 형태의 밀폐형<Fig. 15>으로 나누어 디자인 개발하였다. 투피스 전개형 역시 전통적 깃 형태의 길이를 달리한 가슴선형 깃과 목선형 깃을 적용하였고, 밀폐형에는 저고리의 깃 형태를 상징하는 목선형 깃을 적용하였다.

(2) 하의: 투피스형의 하의로 여성용은 치마, 남성

복은 바지로 디자인 하였다.

① 치마: 치마 길이는 48.5%가 종아리 길이를 선호하였고 30%가 무릎 길이, 21.5%가 발목 길이를 선호하여<Table 16>, 종아리 길이로 디자인<Fig. 16>하였다. 형태는 전통 3폭 치마를 응용한 3폭 랩 스커트 형태로 둘러 입어 매듭단추로 결속하는 착장방식을 사용하였다.

② 바지: 바지 길이는 54.9%가 발목 길이를 선호하였고, 28.5%가 종아리 길이, 16.5%가 무릎 길이를 선호하여<Table 17>, 발목 길이로 디자인<Fig. 17>하였다. 폭이 넓은 형태로 한국적 느낌을 살리면서 일자형의 현대적 스타일과 발목 부분을 모아주는 형태를 병행하도록 하였다. 허리는 고무 밴드와 스트링을 사용하여 휴식복의 편안함을 강조하였다.

위 과정을 통해 제시된 각 부분별 디자인은 20명의 연구자들과 사업단 관계자와의 세미나에서 착장검사의 관능 테스트를 통해 본 휴식복 디자인에 선별적으로 적용하여 <Table 18>에 정리하였다.

Table 16. Preferred length of skirt for Korean style loungewear

Length	Frequency (no. of people)	Percentage (%)
Knee length	991	30.0
Calf length	1600	48.5
Ankle length	708	21.5
Total	3299	100.0

Table 17. Preferred length of pants for Korean style loungewear

Length	Frequency (no. of people)	Percentage (%)
Knee length	508	16.5
Calf length	876	28.5
Ankle length	1688	54.9
Total	307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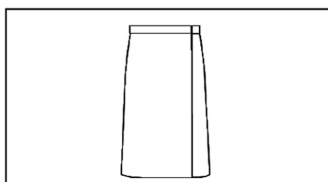


Fig. 16. Ski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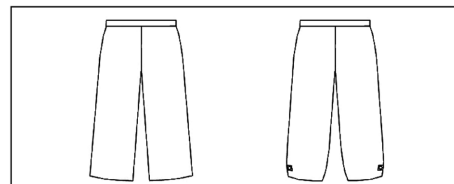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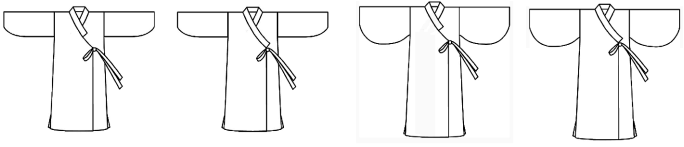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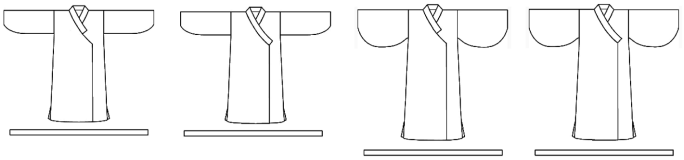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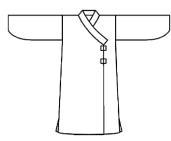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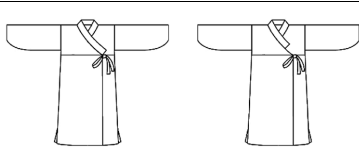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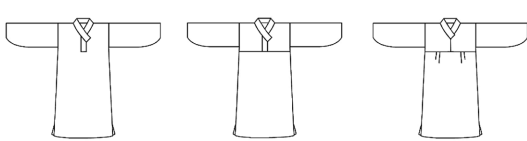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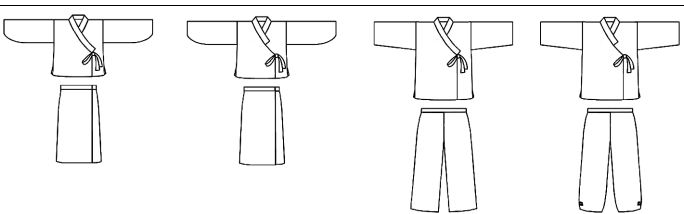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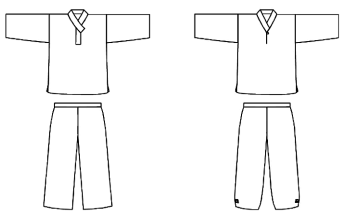


Fig. 17. Pants.

Table 18. Silhouette designs of Korean style loungewear

One-piece style	Open style	Long Goreum style	
		Belt style	
		Button style	
		Yoke style	
	Closed style	(Women's)	
Two-piece style	Open style	Short Goreum style	
	Closed style	(Men's)	

V. 결 론

이상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전통복식의 구조적 특징은, 크고 작은 사각형을 기본으로 부분적으로 삼각형, 사다리꼴 등 기하학적 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그 조형적

특징은 유연한 공간미로 인체를 구속하지 않는 융통성과 가변성을 특징으로 한다

둘째, 전통한복·한국적 패션·휴식복에 대한 의식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통한복에 대한 선호도는 높은 편이나, 활동·관리·가격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디자인의

변형을 통해 활동이 편해지고 세탁과 관리가 용이한 소재를 사용한다면, 전통한복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긍정적 평가가 전통한복의 구매로 바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2) 한국적 패션에 대한 선호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자인 · 편리성 · 가격이 개선된다면 착용할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명절, 기념행사 등의 특별한 날에만 착용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 소재와 실루엣의 변화 등으로 저렴한 가격과 편리성의 보완으로 한국적 패션의 일반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 휴식복 개발의 필요성과 한국적 이미지 부각효과에 대한 긍정적 결과가 조사되었다. 휴식복에 적합한 소재로 내추럴하고 부드러운 면소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기능성 소재를 이용한 휴식복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방충효과, 원적외선 방출효과로 인해 건강 섬유로 부각되고 있는 한지 섬유로 제작된 옷의 휴식복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제시한다.

셋째, 디자인 선호도 조사결과와 한국 전통복의 기하학적인 구조적 특징을 바탕으로 휴식복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1) 실루엣: 전통저고리, 치마, 바지, 포의 특징을 기본으로 한 원피스형 · 투피스형으로 제시하였다. 원피스와 상의는 전개형, 밀폐형, 하의는 치마형과 바지형으로 구분하였다. 원피스형은 상의가 연장된 형태의 상의연장형, 치마 · 저고리를 연결한 형태의 상하연결형을 제시하였다.

2) 디테일: 가장 한국적 부분으로 조사된 저고리 깃과 옷고름을 특징으로 하여, 깃은 가슴선형 깃과 목선형 깃, 길이는 종아리 길이와 발목길이, 여밈방법으로는 대형, 고름형, 띠고름형, 단추형 여밈으로 하여 착장검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적용하였다.

이상의 결과물은 2008년 특허출원하였다.

본 연구의 제언으로는, 첫째, 다국적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글로벌 시대에, 한국 전통복식은 독특한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실용성을 강조한 한복의 현대화는 전통문화에 대한 친밀성을 높이고 한국문화의 브랜드화에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한국적 패션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는 한국적 패션의 디자인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

여 더욱 적극적인 디자인 개선을 통하여 한국적 복식요소를 현대인의 감각과 코드에 맞도록 변형시킴으로써 자국의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인이 애용하는 대중문화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전문가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전주시 · 천년전주명품 온브랜드 사업단과 숙명여자대학교 교비연구로 공동 진행되었으며, 디자인 결과는 1차 2008년 4월 7일 “전주시청 주최 한(韓)스타일 패션쇼”(섬유센터 이벤트홀)를 통해 발표되었다. 2차 2008년 3월 서울리빙디자인페어(코엑스 태평양홀), 3차 2008년 12월 3일 국제공예트렌드페어(코엑스 태평양홀)에 전시되었다.

References

- Chae, K. S. (2001). *Development of Korean style loungewear for tourist industry*. Seoul: Jibmundang.
- Chae, K. S. (2006). *Korean Jeogori 2000 Years*. Seoul: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ess.
- Chae, K. S. (2007). A study on improvement for globalization of hanbok-Focused on the successful cases in luxury fashion brands and asian nation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1(9/10), 1418-1430.
- Chae, K. S., & Koh, J. M. (2009). A study on the Baekje culture of costume (Part 1).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3(9), 1347-1360.
- Cho, O. S., & Jeon, J. H. (2001). Design development for activation of women's hanbok.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5(8), 1378-1385.
- Kim, J. A. (1995). *A study on the preference for patterns and colors of hanbok*.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jong University, Seoul.
- Kim, S. I. (1999). *Superspace and Korean culture*. Seoul: Gyohak Research Co.
- Kim, Y. M. (2000). *A study on patterns of saenghwal hanbok*.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Gyeongsan.
- Koh, J. M. (1998). *A first study of designing practical Korean costume according to the structure of consciousness and tast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Koh, J. M., & Chae, K. S. (1999). A first study of designing practical Korean costume according to the structure of consciousness and tast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3(5), 654-666.
- Kwak, T. G., & Nam, M. W. (2002).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lothing evaluative criteria of hanbok and

- the lifestyle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2(4), 25-38.
- Park, S. S. (2001). *A study on the design of women's Korean cloth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 Selection for Face of Korean Culture. (1996, November 29). *The Dong-A Ilbo*, p. 39.
- Yoo, H. W. (2001). *The study of popularization through wearing condition of practical hanbok or analysis of prefer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Yoo, J. J., & Kweon, S. A. (2006). A study on the active effect of saenghwal hanbok school uniform for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5(3), 449-455.